

# 전통 식초 변신을 꾀하다

### 순창군, 블루베리 활용 프리미엄 상품 연구개발 완료... 산업화 가능성 열어

순창군이 전통발효식품을 대중적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에 나서 성공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한 프리미엄 농산식품 연구개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블루베리 농축식품은 오랜 기간 발효와 농축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식초로 유럽에서 각광 받고 있는 발사믹 식초와 유사한 제조 과정을 거친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실제 생산 및 유통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웰빙식품으로 현대인의 욕구에 맞는 식품인 만큼 산업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에는 서울발효식품전에서 '한국전통발효식초 육성' 심포지엄도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창을 전통발효식초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주제는 전통발효식초 프리미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모색 방안에 맞춰졌으며 100여명 이상의 학자와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한국전통식초협회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웰드프림이 주최하고



순창군은 지난 17일 서울발효식품전에서 '한국전통발효식초 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개최된 행사다.

한국전통식초협회 한상준 회장이 '전통발효식초 산업화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황신구 서기관이 '농식품부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정책 방향', 한국전통식초협회 김용수 연구소장이 '전통발효식초 제품의 다각화 방향', 전북대학교RC 오현희 박사가 '전통식초의 초산균 분리와 농축식초 제조',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백상호 교수가 '발효식초의 발효 메카니

즘 규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한국전통식초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과 신기술 등의 신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황숙주 교수는 "최근 우리 전통식초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순창은 발효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농축식초, 과일식초 등을 육성해 전통식초의 산업화에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하서 김인후 선생 족적 재조명

### 순창군 25일 훈몽재서 학술대회 개최 관심 집중

순창군은 오는 25일 훈몽재서에서 '하서 김인후선생과 순창의 유학'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서 김인후선생과 순창에 족적을 남긴 유학자들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유학을 재조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함께 성찰해보는 행사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또 2009년 중단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훈몽재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도 갖고 있다.

황갑연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하서 김인후와 순창의 유학전통'이란 논문을, 소현성 전주대 교수가 '하서 김인후의 유학사상', 노경규 전주

대 교수가 '백수 양응수의 유학사상', 유지용 전북대 교수가 '여암 신경준의 유학사상', 이천승 성균관대 교수가 '노사 기정진의 유학사상'으로 각각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은 이철승 조선대 교수가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건국대 정상봉, 한국외대 강진석, 한국전통문화대 이은혜, 충북대 이형성, 중앙대 안재호, 중국 남창대 서한복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는 백록동서원이 위치한 강서성의 중국 남창대학교 교수와 학부생 30여명이 참여해 한국과 중국이 유학이라는 주제로 문화교류의 장을 이룰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인 헤아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치매환자 보호자 고충 '헤아림'

### 임실군 보건의료원, 매주 금요일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인 헤아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등 돌봄의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가족 간에 소통의 장을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가족 지지프로그램은 총8회 과정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정신행동증상과 치매위험요인, 치매진단 및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학습 및 응용, 남아있는능력 찾기, 가족의자기 돌보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치매환자 등 가족들의 실제 상황 체험을 위해 역할극과 함께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의 돌봄과 병이 발생하였던 7년 전 모습과 7년 후의 모습이 비교되는 영상도 방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복흥·쌍치·구림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순창군 복흥, 쌍치, 구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지난 18일 구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비 1,200만원으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긴급구호비와 특화사업비 집행 추진방향을 협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또 회의에서는 협의체 연합모금활동을 추진해 면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지역의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분야에는 착한가게 입간판을 설치해 주고, 기관 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구림면협의체에서는 구림면 진도식당, 물통골 한우골과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식당은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3명에게 반찬을 지원해 주고, 물통골 한우촌에서는 김비타민을 운영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기로 결정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구림사람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림면 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구림면지역사회협의체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 임실군 강진권역 맞춤형복지팀

####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임실군 강진권역 맞춤형복지팀은 주거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회진마을 박모씨(67, 여)는 지난 16일 전기 누전으로 보일러실 화재가 발생해 정리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장주석 행복보장협의체 위원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재능기부를 통해 천장과 벽면에 나온 전기를 정리하고 전소된 부분을 교체했다.

장주석 위원은 "작은 손길로 이웃에게 희망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신생된 강진권역 맞춤형복지팀은 강진면, 청용면, 덕치면을 통합 관리하며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남원시 환경사업소,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4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평가항목중 지난해 다양한 조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 각 처리장별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운영 및 매뉴얼을 활용한 운영, 상황별 재

난안전계획 수립 및 재해·재난 전담 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재고 노력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이수, 요금현실화를 계획수립에 따른 중간목표 달성을 등 10개 항목을 개선 및 보완해 공기업정책을 준수하고 특히 민원 신속대응 및 조치로 고객만족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경영목표 이해도와 경영개선 참여도를 높이고, 강우시 하수도관리시범사업 추진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 및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상 燕

### 임실군 24일까지 3박4일간 을지연습 실시

임실군은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 연습 및 전시 대비를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017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올해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 4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전 상황에서 각종 재난과 위기로부터 군민의 귀중

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 첫날인 21일 새벽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1일 행정기관 소산 훈련 및 전시 직제편성 훈련 등이 실시된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는 도상연습 토의 및 전시현안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23일은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 훈련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를 실시하며 오수면사무소는 장사정포 등 공격대비 주민대피훈련이 진행된다.

심민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